

코로나19 극복 온정의 손길

SC제일銀, 구호품 지원 임직원 기부 캠페인

31일까지 지역제한없이 수수료 면제

SC제일은행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노출된 보건 취약계층과 대구·경북 지역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부 캠페인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세정제, 비상식량 등 감염 예방 및 구호 물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집중 지역과 사회 취약계층에 지원할 물품 구입을 위해 마련됐다. 기부금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되며 은행도 기부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 SC제일은행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고통을 받는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



공인의 시름을 덜고자 5000만 원 상당의 대구·경북 지역사랑상품권을 일괄 구입한다.

이 밖에 SC제일은행은 오는 31일까지 지역에 제한 없이 개인의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이체수수료를 모두 면제하고, 대구·경북 지역의 SC제일은행 자동화기에서 SC제일은행 카드로 출금할 경우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출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바일뱅킹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나유리 기자 yul115@



중 상하이에서 기증한 마스크, 대구·경북으로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중국 상하이에서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을 대구, 경북, 부산,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로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중 상하이에서 기증한 마스크 50만장을 대구, 경북, 부산, 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로 배송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게임빌-컴투스, 최전선 의료진에 2억 지원

넥슨 등 대형게임 3사도 20억 성금



모바일 게임 기업 게임빌-컴투스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환자 치료 및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 최전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진 및 관계자들을 위한 후원금 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양사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현재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 후원금을 직접 전달한다.

병원에 전달된 후원금은 방호복,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장 의료진들의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쓰이며,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기기 구비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게임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 기부금 전달에 나서고 있다.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사 3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성금 20억원을 기부했고, 전날에는 게임 연합 크래프톤이 펍지주식회사와대한적십자사대구광역시지사에 10억원의 기부금을 지정 기탁했다.

/김민지 기자 silkni@

맥도날드, 대구·경북 소방관들에 버거 전달

1955버거세트 이용권 4200장



맥도날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소방관들에게 버거 4200세트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맥도날드는 최일선 대구·경북 지역에서 고군분투중인 소방관들이 짧은 시간에 따뜻한 식사를 챙길 수 있도록 1955 버거 세트 이용권 4200장을 대구·경북 소방본부에 전달했다.

최근 대구·경북 지역의 환자 이송 수요가 급증하며 타 지역의 소방본부 인력들도 급파돼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소방관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격투에 시달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다.

/김민지 기자 kmj@

코로나 직격탄, 예술계 끼니걱정에 한숨



홍경안 작
시사일각

문화예술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에 신음하고 있다. 한 방송 외주제작사 대표는 최근 필자와의 통화에서 "2월의 경우 단 1건의 녹화를 제외하곤 일이 없어 쉬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한 프리랜서 실연예술가 역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모든 행사가 취소돼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랄 뿐 달리 방법이 없어 너무 우울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건 예술계 일부만이 아니다. 창작, 실연할 것 없고 뮤지컬, 연극, 영화, 미술 등 장르마저 불문한다. 그야말로 너나 구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밀도 높은 공간에서 복수 이상의 관계사들과 함께하는 구조적 특징을 지닌 공연계는 유독 피해가 크다. 공연 취소와 관람객 감소에 따른 줄도산 위험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심심찮게 들린다.

실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연매출액은 약 2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자가 발생하기 전인 1월 약 400억원 대비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1월 768건에서 2월 853건으로 공연 건수는 늘었으나 상연 건수는 1월 9200회에서 2월 7576회로 되레 줄었다. 예매 수 또한 약 100만건에서 약 50만건으로 곤두박질쳤다.

폐업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공연 제작사들과 소규모 극장들의 처지도 그렇지만 시각예술계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지난달 23일 코로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국내 주요 국공립미술관과 화랑들은 일제히 동면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모이는 아트페어와 경매, 미술 강좌 및 행사, 교육 또한 대부분 잠정 연기되거나 취소됐다. 기획전과 작가 개인전도 확 줄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진행 중인 전시엔 관람객이 없어 개점휴업과 진배없다.

공연 제작, 배급·전시가 중단되고 미술유통망이 막히자 약 70%에 달하는 프리랜서 예술인들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배우와 스태프는 일자리를 잃었으며, 시각 분야 예술인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일이 없으니 수입도 사라졌다. 각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의 지원금 심사가 보류되면서 향후 계획마저 불확실해졌다. 때문에 많은 예술인들은 비자발적 실직 상태에 놓인 채 하루하루를 끼니 걱정으로 채우고 있다.

현실이 이런데도 예술인들의 기초적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예술인고용보험법'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애초 예술인의 노동 가치와 지위·권리 보장에 염두를 둔 것이지만 실제 위험에 따른 소득보전과 실업급여 수급 차원에서 진작 시행했다면 재난 상황에서도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술인을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는 생활자금 용자 30억원 등의 긴급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액이 적은 데다 그나마도 언젠간 갚아야 할 '빚'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라 보기 어렵다. 새로 책정되는 추경예산의 적지않은 부분은 예술계와 무관하고, 행정적·제도적 개선은 더디거나 변함이 없다.

그렇다고 정부의 노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문화예술계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예술인들과의 만남을 지난 2월 20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갖기도 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코로나19' 창궐한 달여 만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நட장행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등, 그동안 겪은 전염병에 관한 경험과 사례별 데이터를 토대로 한 국가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시한 후 수정·보완하는 식으로 예술계 의견을 듣는 게 바른 순서였음에도 과정은 그렇지 않아 빈축을 샀다. 하루가 급한데 이제 의견을 들으면 대체 시행은 언제 하느냐는 비판도 나왔다.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사회적 재난은 국민 모두에게 시련이다. 누가 더 하고 덜하고 고통의 무게를 저울질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견뎌야 한다는 절박함 또한 동일하다. 그렇기에 '예술가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예술가들에게도' 신경 써달라는 주문은 필요해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처럼 '일자리의 위기, 소득의 위기, 생존의 위기'는 예술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술평론가

임성재, PGA 첫 우승... 코로나 비상시국에 '희망'

CJ대한통운은 소속 프로골퍼 임성재 선수(22)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코로나19 국면을 맞은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선수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 비치 가든스의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에서 열린 PGA 투어 혼다 클래식에서 2위에 1타 앞선 최종합계 6언더파 274타를 기록하며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시즌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PGA 투어 신인왕을 받은 임 선수는 자신이 출전한 50번째, 정식 데뷔 이후로는 48번째 대회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임 선수는 이 대회 우승으로 우



CJ대한통운 소속 임성재 선수가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있다. /CJ대한통운

승상금 126만 달러(약 15억2000만원) 뿐 아니라 페덱스컵 포인트 2위에도 올

랐다.

임 선수는 세계 최정상 골퍼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어렵다는 PGA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의 일명 '베어트랩(곰뿔)' 3개홀(15~17번홀)에서 마지막 라운드에서만 2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선두로 올라섰다. 특히 임 선수는 마지막 18번홀에서 3번째 샷이 벙커에 빠지며 1타를 잃을 위기를 맞았지만 침착하게 벙커샷을 핀에 붙이며 파세이브에 성공했다.

임 선수의 이번 우승으로 세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기극복 DNA'를 주목하게 됐다라는 평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인사

- ◆보건복지부 ◇ 과장급 △ 기획조정실 재정운영담당관 고희우
- ◆광주대학교 △ 총무처장 설혜수 △ 창업지원단장 최완석 △ 사회맞춤형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단장(LINC+) 김정근
- ◆충남 아산시 △ 보건소장 구분조 △ 보건행정과장 전유태 △ 징수과장 박종민 △ 위생과장 이정남 △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상욱
- ◆디지털투데이 △ 차투원모빌리티연구소 소장 차투원

◆그린포스트코리아 △ 광고마케팅국 팀장(국장대우) 이달호 △ 뉴스편집 광고마케팅국장 이영창

부음

- ▲ 오동수 씨 별세, 손주석(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8시17분, 광주국빈장례문화원 201호, 발인 4일 오전 7시40분, 장지 광주영락공원. 062-606-4000.
- ▲ 이순례씨 별세 양희곤(KT전남·북본부 홍보실장)씨 모친상 = 3일 오전,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발인 5일 오전 9시 30분. 062-220-3352.

▲ 김용운씨 별세, 김호영(연합뉴스TV 부산 광고지사장)씨 부친상 = 3일 오전 4시 21분, 부산 서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5일 오전 9시, 장지 천주교 양산하늘공원. 051-949-1024.

▲ 강태혁 씨 별세, 강성모(전 강서공고 교장)씨 부친상, 정승훈(전 국토정보공사 직원)·박병기(연합뉴스 전국부 부장)씨 장인상 = 2일 오후, 충남대병원 장례식장 특3호, 발인 4일 오전 6시. 042-280-8181.